



# 공무원만 쉬는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의미 퇴색

### 도, 2018년 지정... 공직기관 외 대부분 적용 제외 "추념일 의미 되새기기 위해 휴일 적용 확대해야"

추념 분위가 제고와 도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제주4·3희생자추념일(4월 3일)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반쪽 공휴일'에 그치고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공무원을 제외한 교육청과, 학교, 사기업 등이 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온 도민들이 제주 4·3 추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 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는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조례 제의를 요구했지만, 국무

회의에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지자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방식이 확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 후 제주를 올해로 4번째 지방공휴일을 맞이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도민들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르면 4·3 지방공휴일은 제주도의 회, 제주도 분청 및 하부행정기관, 제주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주도 합계행정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도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도지사 책무로 4·3추념일 공휴일 시행을 권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권고 형태로만 적용되면서 도교육청과 일선학교, 민간기업 등은 4월 3일에 휴무하지 않고 있다. 도민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도 분청과 양 행정시, 의회 등 공무원을 제외한 도민들이 추념일에 출근하지 않고, 4·3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첫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도민 A씨는 "공무원들만 휴무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도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4·3을 모든 도민이 온전히 추념할 수 있게 휴무 참여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일 제주에서 협의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전국 교육 수장들 '제주의 아픔' 함께하다 시도교육감 제주서 협의회 개최... 오늘 4·3 추념식 최초 동시 참석

전국 시도교육감이 2일 제주에 모여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교육 현안 등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날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9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제안으로 제76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맞춰 열렸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자의 개인과의 교습행위 제한 아동 복지법 개정 건의와 함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등 10개 안건을 심의했다.

안건 심의에 이어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 디지털 기반 학습수 제주도교육감의 제안으로 제76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맞춰 열렸다.

시·도 교육감들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함께 참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제76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맞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총회 자리가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제주4·3 대하는 정부·여당 태도 실망"

### 4·3기념사업위 성명...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

윤 대통령·한동훈 위원장 제76주년 추념식 불참 예정 제3지대 지도부 속속 제주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재욱 국힘 원내대표 참석

석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추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이 대표는 4·3 등 제주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3지대 정당에서는 지난달 22일 창당발기인 대회 참석차 제주를 방문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추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미래에서는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이 참석한다.

녹색정의당도 지도부 참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제주지역 후보를 내지 않은 점과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불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4·3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추념식에 불참할 것으

로 예상되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등 제주 지역 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당리당락을 떠나 도민들은 이번 제주4·3 76주년 추념식에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해 4·3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기를 희망했지만,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위원장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4·3을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매우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한 위원장에 대해선 "그동안 4·3추념식에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이 불참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한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한 번도 제주를 찾지 않고 4·3 추념식까지 참석하지 않았다. 도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부미현·이상민기자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여야를 대표해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4·3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예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신해 윤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인오환 선거대책위원장이 추념식 참

## 식중독 의심환자 올해만 벌써 56명도 "일교차 심한 봄, 식품 조리과 보관 주의해야"

봄나들이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일 최근 도내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일교차가 큰 봄나들이철 식중독 예방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일교차가 심한 3월 개학 및 봄나들이철은 세균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고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하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11월부터 4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연평균 15건가량의 의심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6건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6건의 의심사고로 5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학교 및 집단급식 2건에 31명, 음식점 4건에 25명 등이다. 원인병원체로 병원성 대장균 및 노로바이러스 등이 검출되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집단급식시설이나 음식점 등의 조리종사자들은 개인위생 및 식품 조리·보관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 연인 스토킹 50대 구속

헤어진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연인의 지인까지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전 여자친구인 B씨와 헤어지자고 말하자 지속적으로 B씨의 주거지와 영업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그의 지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재범을 우려해 유치기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김재현기자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생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귤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 씨넛묘목분양

- ★ 만감류 - 씨넛 - 카라향 - 윈터프린스
- ★ 조생 - 유라 - 궁천
- ★ 기타 - 레몬 - 하귤

### '씨넛'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넛'(품종보호 제6039호)은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인(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씨넛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 하는 것도 불법) 농가에서도 타 업체에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접순 나눔(고접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넛으로 판매를 못합니다. (적법시 형사처벌 합니다)

★ 시정 조치 현황 · 농가 : 17 농가 · 업체 : 1개 업체

##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란? ▶ 관내리 월성과 부리순산 방지 미숙시각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적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부의 형성에 좋으며 미숙시각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귤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론 / 미니향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다수 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론 ● 제라론

※ 포트묘목 생근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귤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